



제 86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akr> 2014. 10. (제273회 제1차정례회)



봉화 청량산의 가을

지면안내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소식 / 의정만평 2~4면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100일 특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고 6면 -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 도농간 학력 격차 진단과 처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 법률상식 14면 - 5분 자유발언 · 김인중 · 이정호 · 김위환 · 박운아 · 윤종도 · 이흥희 · 김정숙 · 최병준 의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5면 - 황아주 상정보건복지위원장,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활동 7~13면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상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한나 변호사 · 주민의 권리 찾기 조례제정 · 개세 청구권 ■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간담칼럼 15면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결산, 민생관련 안건처리

2013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경상북도의회는 9월 23일 오후2시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7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와 도민 민생 관련 각종 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73회 정례회의 구체적 세부일정을 보면, 첫날인 9월 23일 오후2시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과 2013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았다.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와 민생관련 각종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한 이후, 10월 8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오늘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최와 함께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추석명절을 비롯한 비회기 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장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가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변화와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집행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함께 하는 의원연수회 개최, 열린의회를 위한 역대회장 정책간담회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대상기관 선정과 감사자료 요청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하겠으며 또한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결산 관련 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는 경북도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했다.

이번에 심사된 201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경북도는 세입은 7조 5,373억원, 세출은 6조 8,659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 7,714억원, 세출은 3조 4,581억원이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재정의 건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5월 전문결산검사 위원들로 구성된 2013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게 되는데 당시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징수소홀, 도로점용 관리소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과다발생 등 다수의 검토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특히 불용액,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결산안 심사를 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남정해
편집인: 이태암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북구 영랑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내실있는지방자치 실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앞장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100일 특집



하며,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을 공개모집하여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집행부 견제 감시·감독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1회 5명의 의원이 14건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 답을 찾아 현지확인 활동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총 3회 45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7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30건, 예결산안 4건, 결의·건의안 9건, 동의·승인안 4건, 기타안 22건, 규칙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9회 실시하여 23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앞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에 우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전구 17개 시·도의회

의 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상시 기구 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입법정책 의정활동홍보 전문직 공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4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부여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 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2014년 8월 28일 14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가 경북도의원, 권호락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 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대진 의장, 전국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당선 지방자치법특별위원회소속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자치법개정 연구활동 돌입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전구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를 논의하는 기구인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가 10월 16일 서울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자치법개정 움직임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는 향후 1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무작업을 전담하게 되며 특별위원회의 조정과 보완 그리고 의장협의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최종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영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수도권별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도 그 실무를 이끌어 나가게 되며, 지방자치법개정 최종 보고자료 작성 등을 주도하게 된다. 🍎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현장점검 실시

300만 도민과 함께 행복한 경북의 미래 열어가기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일 제10대 도의원 60명이 안동시 풍천면 신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현재 신청사 공정

률 82%를 보이고 있는데,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경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의회운영 발전방안 위한 의원총회

경북도 조직개편 및 의회운영 발전방안 토론회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일 오전 11시 도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전체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원활한 의회운영과 발전방안을 위한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도의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논의, 토론회 있었는데,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경북도 조직개편안 보고를 비롯한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강이 있었다. 🍁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상북도의회가 앞장 선다

구미 왕산초등학교 등 2014년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선거와 토론, 표결 등을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심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21세기 차세대 지도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제10대 의회에서 중점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장 선거를 하였고, '만화채널 야간 방영 제한에 대한 조례안',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위치추적 시스

템 의무화 결의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실제 의정활동과 같이 체험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발표했다. 🍁



사할린주의회와 국제친선교류

정책교류 통한 양의회의 발전방안



경상북도의회(단장 한혜련)은 9월 18일 경북도의회와 자매결연의회인 러시아 사할린 주의회를 방문하고, 상호 우호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러시아 사할린의 방문은 1999년 4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다섯 번째 방문이다. 사할린주의회에서는 예프레모프 블라지미르 일리치 의장(62세) 등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원들을 환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

팔공산국립공원여는대구경북의미래토론회



홍진규 위원장(군위군)

의회운영위원회 홍진규 위원장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시도민의 지지와 공감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공원 승격은 국가가 사유지매입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10월 2일 팔공산 맥심석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팔공산국립공원으로 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토론회'에서 밝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 선출



김희수 위원장(포항시2)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은 9월 26일 오전에 개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제4기 조합회의의장(임기 2년)으로 선출되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는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청의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등 구역청 운영 전반을 관장했다.

'2014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이진락 위원장(경주시2)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은 (주)해럴드와 코리아해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 및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 의정행정 부문에서 우수 인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인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오직 도민의 복지증진 위해
의정활동 수행

황미죽 행정보건복지위원장(울진2)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복지와 보건 그리고 경북도의 세입과 일반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있고 도민의 욕구가 많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8명의 도의원님이 함께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경북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제10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황이주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서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조례를 가장 많이 만든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난 1월 전국 시·도회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황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만큼 높은 기대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녹여내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 발전 등 경북도

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확대에 동의를 하나, 늘어나는 만큼의 비용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새로운 사회복지사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세입구조(구비:지방세=2:8)는 너무나 빈약한 현실로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구가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앞으로 ‘안전한 경북,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실현’의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본연의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이고 내실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 🍅

문화복지 사각지대 없애고,
맑고 깨끗한 환경 확실히 다진다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청도2)

특유의 소탈함과 친근감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은 먼저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제10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기쁘보다는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뭇 진지한 어조로 소감을 피력하고, 남녀노소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재선 도의원인 박 위원장은 청도군의회 3선으로 의장직을 역임한 바 있고, 제9대 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관록의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청도군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경북씨름협회 고문 등 복지, 체육분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경북의 경우 산림면적이 강원도 다음으로 넓은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잘 다듬고,

연결하고, 꿰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배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그는 새롭게 구성된 8명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다하는 한편, 도내 각종 사업현장에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태를 확인하며 도민의 마음을 읽고 눈높이를 맞춘 살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잠시 숨을 고른 박 위원장은 최근 밀려드는 중국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북만의 특징점을 개발하는 일,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과 백두대간 및 700리 낙동강의 녹색생태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일 등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할 것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과 견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 나가는 한편, 건설적인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상을 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도농간 학력 격차 진단과 처방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얼마 전 경북의 일부 군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령화 사회를 초래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출산을 저하에 있다. 출산을 저하는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경북지역의 학생 변화를 보면 그 추이가 뚜렷하다. 현재 경북 지역의 학생 수는 약 35만 명 정도이다. 2012년 37만 명, 2013년 36만 명과 비교하면 해마다 만여 명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2030년에는 학생 수가 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도시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편성되는 반면 농촌 지역에는 학생이 없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농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해지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더 나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도 쉽지 않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도시 간에도 명문고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감성과 인성, 지성과 학력은 전인 교육의 양 날개와 같아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자를 강조하면 학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에 치우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학력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학부모의 불안은 물론 농촌 지역 공동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드러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경북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40%를 차지하여 도농간 학

력 격차 문제를 좌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농간 학력 격차 해소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의 근본적인 방안은 교실 수업 개선에 있다. 교과서에만 의존한 강의와 판서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사고하고 발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서와 토론으로 감성과 논리를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실 수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수업 브랜드를 만들어

에서의 인센티브라든가 전보 가산점 부여, 순회 겸임 교사 교통비 지급 등으로 우수교사를 소규모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 지역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급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근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을 구성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 72개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상담 센터 운영 등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도농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13~2014년 도내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 2.60%에서 1.60%로 중 0.62%에서 0.47%로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3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나타난 올진고의 성적은 괄목할 만하다. 2012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교육부, 도교육청, 지자체, 한울원자력본부로부터 연간 총 4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2013년 수능 영어 A 영역에서 1, 2등급 학생이 47%, 국어A 영역 1, 2등급 학생이 24%로 각각 전국 1위, 17위를 하였다. 이는 심화되는 도농간 학력 격차 현상 해소 가능성을 보여 주는 농촌 지역 학교 운영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두된 농촌 지역의 이농 현상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그 속도가 주춤하고 있으나 도농간 학력 격차의 골은 쉽게 극복되고 있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농촌학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더 이상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라는 학교 특성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농산어촌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도농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교육청의 노력이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도·농간 불균형, 학력격차 야기 교실수업 개선 등 근본적 대안 요구 도교육청 '농촌학교지원책' 노력에 성과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은 교실 수업의 변모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학생들에게는 기초 기본 학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 단계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충이나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기초 기본 학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학습이나 멘토링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방과후학교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펼쳐 학력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도농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원의 소규모 학교 근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승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어 체험학습실, 도서실, 컴퓨터실, 여학생 및 학습기자재 등 학교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면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 30교를 선정하여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군 또는 시 단위를 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농산어촌 명품고를 육성하여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고교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비전 정립 및 학력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도농간 학력 격차 해소는 사교육비 경감과도 맞닿아 있다. 경북의 농산어촌 지역에는 마땅한 사교육 기관이 거의 없다. 학교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학습 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도, 대학진학 정보 지원 및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안건 처리



안건 심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지난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처리 안건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경우,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예산 131억 6천 5백만 중 125억 7천 7백만원(95.5%)이 지출되었으며, 일부 과목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있으나 이는 업무형편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으로 의회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낭비 요소없이 필요 적정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경우, 위원회의 법규 심사규정에서 위원회 안전심사 시 축조심사 생략과 구내외의 주요인사가 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등 집행부 견제·감시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각종 안건심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에서 연설을 원하거나 듣고자 할 경우 연설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도정 및 교육행정사무 업무전반에 대해서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외 6개 위원회가 소관 기관별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견의를 요구하고 2015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법인,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와 현장확인 실시함에 있어 각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의 중복, 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각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협의안을 심사 의결, 의장과 각 위원회에 통보했다.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사무총장 당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주관으로 10월17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제7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홍진규(군위)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공동이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상호정보교환과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그 동안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제도 개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참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
2.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9월 29~30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심의, 본청 5개 실·과에 대한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1

경북도 경제, 일자리 관련 4개 조례 안전처리 '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의, '13년 회계연도 감사 결산심사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실천을 위한 조례개정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 도청시대를 대비하고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실천 등 일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2013 회계연도 대변인실 결산 심사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도정사 발간 사업의 경우 2012년 추경에 편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받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 경북 일자리 창출계획 조례안 등 주요 현안 검토

북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김창규(칠곡) 의원은 '신 문스크랩 지적재산권 이용료가 정당한 예산집행인지'에 대해 물었다. 장두욱(포항)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이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조기집행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태식(구미) 의원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시군마다 천편일률적'이라 지적하고 '지역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주문하였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일자리 투자본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사고

이월 시킨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 안전 심사에 앞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에서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 예산심사 시 감액 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송재호 교수의 '제주도의 관광정책' 특강시에는 제주도의 선진관광 정책을 우리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3



2

1. 제주 강정마을(현장방문)
2. 201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연찬회
3. 2013결산안 심사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조례안과 '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 도 소관부서 및 출자 출연기관 각 7개소 행정사무심사 계획 가결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73회 1차 정례회 기간(9.23~10.8) 중 조례(동의)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수용(영천) 의원의 단독 발의로 식품기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신도청 이전기관(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3년간 3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최태림(의성) 의원은 이주 지원비 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 도청 지역의 조속한 정주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남진복(울릉) 의원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 제외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진규(군위) 의원은 늦게나마 민원불편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기존의 조례와의 중복 요인 및 사업 내용 미비 등을 이유로 의안 유보하였으나, 가족관계 증진사업, 문화체험 활동 등 사업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정가결했다.

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해 황이주 위원장은 '효 확산과 효 문화 장려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위한



1. 빛고을노인건강타운(현장방문)
2. (재)전남여성플라자(현장방문)
3.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사

신도청이전기관소속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가결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추가 보완 수정가결

것'이라고 말하고, '할매·할배의 날' 지정을 통한 세대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막스플랑크 한구 연구소 유치·설립에 기여한 피터 폴데 교수, 경북농업기술원 공동연구 과제 책임자로 도-몽골간 협력 사업에 기여한 나상자르갈 교수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

보건복지구 및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에서는 김인중 의원(비례대표)은 여성발전기금 추진사업에 대하여 캐묻고,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전행정구, 경북도립대학교,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결산심사에서는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등에 대한 철저한 채권 확보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였고, 이정호(포항)과 김봉교(구미)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자주재원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학생수 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도 소관 부서 7개소 및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했다.

현장방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전남여성플라자와 전구 최고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하여 지역여성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 노인복지사업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문화관광체육구과 환경 산림구(관련 사업소 포함)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2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건을 심사·처리하고, 25일(목)부터 1박 2일간 평창, 속초 일원에서 특강을 듣고, 강원도 지역의 관광개발지 및 역사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등 상임위 연찬회를 가졌다.

또 29일(월)에는 도내 3대 문화권 사업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시설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린 소관 부서의 2013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인력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2013년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3대 문화권 사업장 현지확인 및 상임위 연찬회 등 현장중심 전문성 강화 활동 전개

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매년 이월액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 사유 또한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사업부지 미확보 등 업무추진 미흡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 관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건을 심사하고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본청과 출연·출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징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평창, 속초 일원에서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지역 랜드마크의 역할과 기능, 이미지메이킹 등에 대한 특강 및 강원도 지역의 생태환경 보존사례 및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견학하고 우리 지역 시책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상임위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과 정보공유 등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3대문화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위원회는 계속해서 29일 도내 산림녹색휴양지 및 3대 문화권 주요 사업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확인하는 등 생산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내년에 개관 예정인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에서는 남은 기간 편의시설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전구에서 으뜸가는 휴양지가 되도록 운영·관리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한창 공사중인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와 김천 '황학산 하야로비공원' 조성현장을 방문, 3대 문화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백두대간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1. 안건심사
2. 3대 문화권 사업현장 방문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와 합동 연찬회)



농수산위원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1. 청송, 의성 현장방문
2.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3. 조례안 심사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및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지원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심사

조례안 심사 및 FTA대책특위 간담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최날인 9월 23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2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하고,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한창화(포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의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남진복(울릉,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의 동절기 정상운항을 위한 유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 생활편의 등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농수산위원들은 이날,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특별위원회 설치이후 경과 및 주요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중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북 농어업의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도서지역주민복리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FTA 등 현안관련 현장의소리 직접수렴하며 경북농업 활로모색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농민사관학교 간담회 세출결산승인 심사

농수산위원회는 24일, 농축산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하고, '(재)경북농민사관학교 간담회'를 가졌다.

농수산위원들은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례와 예산전용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교장 김승태)로부터는 각종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경북 농어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경영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 의성 현장방문 및 한농연 간담회

농수산위원회는 29일과 30일,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및 노후 저수지, 종자 생산·보급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송관내 관련 시설들과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수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폐회날인 10월 8일, 경북농업회생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집회 중인 경북도청 정문 앞 집회장을 방문해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회원들을 격려한 후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의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경북 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경북도 신청사시대 개막, 새로운 천년의 역사 맞이에 준비철저 당부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소통과 화합하는 의정활동 전개

세출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73회 정례회 회기중 9월 24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건설도시방재구,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안 심사에서 박문하(포항) 의원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11억 6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경주소방서, 보수비가 타 소방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다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석(구미) 의원은 대응구조구급과가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묻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방재구 소관 세출결산안 심사에서 윤성규(경산) 위원장은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는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질책했다. 박용선(비례) 부위원장은 지방도유지관리 배상금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 보다 많은 국비예산 확보되도록 최선 당부

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사전조사 및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아 예산의 사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안 심사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도청이전추진과 관련,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항상 소통·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천희(영양) 의원은 도청신청사와 기반시설공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아파트 등 정주여건이 조성된 뒤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도청이전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개최 1천만원중 75%인 7백 50만원이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용(영천) 의원은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추진으로 추가 구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

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총22개 기관으로 건설도시방재구,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소방학교·17개소방서와 1개 사업소(종합건설사업소)등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환경·건설소방위원회 합동 연찬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 속초 등에서 2014년 상임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가졌다. 평창 알펜시아를 방문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사항, 지역관광자원의 개발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계올림픽경기장과 선수촌 건설현장 등을 둘러봤다. 이영주 박사의 '도시 랜드마크의 역할과 기능'이 한 주제로 전문지식 특강과 '이미지 메이킹이 경쟁력이다'란 주제로 CS솔루션 최정아 대표의 특강을 듣고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토론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0. 1일과 10. 8일에 대한전문건설협회경북도회와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 2013회계연도세출 결산안 심사
2. 2014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
3. 대한 전문건설협의 경북도회와 간담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상임위, 2개안전 심사, 2014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예정



민간투자사업(BTL)의 신중한 검토 필요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했다.

안전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지방채 발행보다 이율이 높은 BTL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임대료 지급시 5년마다 재산정되는 이자율을 낮추어 재정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초기 단계부터 두가지 사업에 대한 비교선택에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지출과 사업추진의 부적정 지적

예비비의 예산액은 405억원 규모로 4건에 7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중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학교에 배수로,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토지소유자의 원상복구 요구에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며 허술한 업무처리와 공신력 훼손을 질타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1. 7~11. 2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23개 기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했다.

본청과 10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정보를 얻어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역량강화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회계학회 부회장인 김동욱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재정 현황과 예산·결산심사기법'이란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특강을 마련한 이영식 위원장(안동3)은 '지방의회가 예산·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위원 상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연구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도민들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

BTL사업과 지방교육채 발행의 신중한 검토 요구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 촉구

안전 심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73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9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전을 심사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되었다.

안전심사에 나선 위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미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세입예산의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현액 3조 7,634억 8,500만원 중 3조 4,580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13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915억원으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으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 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 현장 부적응학생 교육시설 방문
2. 2014년도 교육위원회 워크숍
3. 제1차 교육위원회 안전심사



5분 자유발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촉구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여성폭력 현황은 2011년 1,022건에서 2013년에는 1,879건으로 83.9%이나 급증하여 도내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등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전관리 대책마련 촉구

이정호(포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포항 포스코엡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페로실리콘 공장의 이산화황(SO2) 분진유출 사고의 경우 1년 남짓 가동한 시점에 분진발생사고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총 303개소에 달하므로 관리감독권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배출업소가 많은 시·군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4)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정체성 분명히 할 때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위한(비례) 의원은 1998년부터 시작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이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2일

까지 치러진 '이스탄불 in 경주 2014'를 지켜보면서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글로벌 문화축제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 경주의 축제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신라문화를 모태로 하는 경북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경북의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 지적했다.



김위한 의원(비례)

사할린주의회와 친취적 통상교류정책 펼쳐야

박문하 의원(포항)은 9월 중순경 러시아 사할린주의회를 공식 방문한 사항과 관련, 두기관의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자매결연은 허울뿐이고, 내실있는 열매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문화예술 활동 강화 등 다양한 교류정책과 함께 친취적인 구체통상교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성공한 구체교류를 예시할 때 경상북도의회-사할린주의회가 거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하 의원(포항4)

농산물재해보험 지원 강화강력 촉구

농수산위원회 윤종도 의원(청송)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발생이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보

험가입면적이 2012년 18,743ha에서 2013년 18,557ha로 감소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타 시도 농가 자부담률이 20%인 것에 비해 경북도는 25%나 돼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TA체결로 인한 경북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

대구연구개발특구 확대지정 강력 촉구

농수산위원회 이흥희 의원(구미)은 특허생산성이 뛰어난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기업 3개와 연구소 기업 16개 정도에 불과해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반이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특구의 연구개발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구미를 대구특구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김해·창원을 확대지정 등 특구변경 선례가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구미가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흥희 의원(구미5)

사회단체간 갈등조정 역할 등 적극적 행정 촉구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사)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설립허가에 따른 집회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구성원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법인설립 허가과정에서 보여

준 경상북도의 대응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성립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할 수는 있지만,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바 적법성과 절차만을 논하는 소극적 행정에 안주하기 보다는 사전에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김정숙 의원(비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대응에 강력 촉구

최병준 의원(교곡위원회, 경주3)은 '원자력 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경쟁력과 가능성이 높은

시군에 설립을 집중 지원하는 도차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파급효과는 유치지역과 인접 시군 등 경상북도 경제발전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이 기대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 과제인 만큼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최병준 의원(경주3)

법률 상식 주민의 권리 찾기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풍년임에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역풍을 맞는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북과 전남 등지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봉화군에서 제정되었다.

이처럼 농민들의 염원인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가 해당 지역에서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조례제정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최한나 변호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이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9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다만 법은 이와 같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등 감면', '행정기구 설치', '공공시설 설치반대'와 같은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표자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단체장이 공포하면, 이 날로부터 광역은 6개월, 기초는 3개월 동안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명부에는 일정 수(경상북도 19세 이상 도민의 1/100) 이상의 주민서명이 필요하다. 요건을 갖춘 주민발의 조례안은 단체장이 조례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방의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현 제도는,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의 요건을 갖추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결, 수정의결, 폐기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가 의회의 의원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 조례안을 회부하지 않고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짓거나 의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수정의결을 못하게 하는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인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서명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주민이 크게 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여러 지역 농민회에서 주민조례제정청구제도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방의회의 관심으로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주시 보문로 446(신평동) 경상북도관광공사

☎ 054-740-7240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신 도청시대를 대비하고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실천 등 일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실·구·본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실·구 단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도의회 입법정책 지원기능 강화 및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업무, '119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실천 등 일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농촌지도·보건환경 및 소방조직 직급체계 통일 등에 따른 직급조정과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과거부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하고 이전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지원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사용(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향후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를 사용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김수용 의원 2014. 9. 12.
- 제안이유 :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등으로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 제안이유 :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과 경북도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융성 정책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명호 의원 외 59명 2014. 9. 12.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박물관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립박물관의 입장료가 전국적으로 무료화

추세에 있는 바, 입장료 및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근거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기능,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및 금연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 전반을 재정비 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한창화 의원 외 8명 2014. 9. 12.
- 제안이유 : 최근 수년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전국 축산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추정되고, 특히 경상북도 축산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음. 이에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해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및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 발의자 : 남진복 의원 외 10명 2014. 9. 15.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도서지역(울릉도)의 유일한 여객 정기노선인 포항-울릉간 노선이 동절기 선박 정기검사 등으로 소형여객선이 대체 운항되고 이로 인한 잦은 결항은 생필품 품귀현상, 이동권의 제한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발생, 동절기 정기 여객선의 정상운항을 위한 유류 보조금 지원의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등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9. 17.
-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효 사상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할매·할배의 날 제정으로 월 1회 이상 손자녀가 조부모를 찾아가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수 교수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당뇨병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음주 등의 원인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질병이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고지혈증으로 분류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모두 나타난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대사증후군은 의학적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인 대표적인 질병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운동처방사의 운동처방을 받아서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처방사는 약을 받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듯이 우리 몸의 운동능력 등을 측정하여 필요한 운동종목, 강도, 운동빈도, 운동시간, 운동기간 등을

건·강·칼·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의 운동관리



정하여 주는 것이다.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시작하여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운동처방 없이 몸에 맞지 않게 운동을 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이다.

고혈압 환자의 운동처방으로는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는 의학적 치료를 먼저 시작하여 혈압이 조절될 때 운동을 시작한다. 운동 종목으로 걷기나 자전거타

기, 수영, 저강도의 저항성운동이 좋다. 1주일에 3~5회 운동을 실시하고 1회에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10분, 총 50분 정도하면 된다. 식후 1시간 지난 뒤 운동을 하고 기온이 내려가는 추운 겨울 아침이나 저녁은 피한다. 운동은 6주 이상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식후 1시간 이내는 피한다. 빨리 걷거나 수영이 격렬한 달리기보다 효과적이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당뇨환자는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저혈당에 대비하여 늘 사탕 등을 준비하여 운동을 해야 한다.

고지혈증의 운동처방으로는 산보, 조깅, 맨손체조, 자전거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1회 30~60분 정도로 주5일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고지혈증 환자도 식사요법을 병행하고 금연, 절주를 실천하도록 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개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은 일상 활동으로 소모됨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상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질병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론수렴 위한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14. 11. 7 ~ 11. 20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보고 느끼는 사항(정책제안, 제도개선, 생활불편 등)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기간 2014. 10. 1 ~ 11. 6

제보내용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제보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 접속 후 팝업창 서식다운로드 클릭 후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53-950-5139)

– FAX : 053-950-5140

– 우편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의회(의사담당관실)

– 전자우편(E-mail) : syh2030@korea.kr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